불자 세상보기

기다림만으로는 북핵 해결 안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카다피 정권 몰락 지켜본 북한
핵개발 포기 않을 가능성 높아
북한 핵능력 향상 막기 위해선
포괄협상부터 조속히 이뤄져야

리비아의 철권통치자 카다피가 사망함으로써 42년간 지속돼 온 카다피 독재체제가 종말을 고했다. 카다피가 처참하게 살해되는 광경을 지켜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심기는 매우 불편할 것이다.

북한 김일성-김정일 정권과 리비아 카다피 정권은 그동안 '제국주의' 미국에 맞선다는 기치를 나란히 내걸고 장기 독재체제에다 권력의 부자세습을 추진하는 등 공통점이 적지 않다. 북한은 그동안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무기를 리비아에 수출해왔고, 리비아가 과거 핵개발을 추진했을 때 북한과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서방의 적대시 정책에 맞서 핵무기 개발을 거의 비슷한 시기,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했던 북한과 리비아는 2003년을 기점으로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섰다. 카다피는 2003년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고농축 우라늄(HEU)을 포함한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했고, 미국이 요구한 사찰 방안을 수용했다. 반면 북한은 '리비아 모델' 수용을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카다피 정권의 몰락을 지켜본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카다피의 길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북한지도부가 핵무기에 더 집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월 서방의 리비아 군사작전이 시작되자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란 바로 안전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 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했던 리비아 모델은 완전하고, 검정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면 서방과 관계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핵포기 요구를 수용했던 카다피 정권의 붕괴에서 '부정적 교훈'을 얻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 포기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되풀이 하지만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정착 등 주변 국가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 회담이 연이어 두 차례 이어졌지만 아직 본격적인 북핵협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가고 있지만 6자회담 재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을 요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비롯한 모든 핵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의 선행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리비아사태를 목격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협상보다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적 사고'에 기대어 대화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지도 모른다. 여태까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지루한 협상보다는 제재와 압력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북핵 해결의 빠른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재와 압력, 그리고 기다리는 전략만으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평화보장과 관련한 포괄협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부대중 칼럼

성삼재의 단풍잎이 너무 붉었나

경문 스님
하동 수미산방

차 한잔의 나눔에서 흙 내음 맡고
그림 한 점에서 바탕 엿본다면
그로인해 잠시나마 행복하다면
출가이후 회향의 숙제를 해가는 것

"아, 가을이다."

성삼재를 넘으면서 연신 탄성이다.

남원 실상사를 향해 길을 나서보니 곳곳에 물든 단풍이 완연히 가을이라 일러준다.

그저 한 발만 내딛어 문 밖을 나오면 시절의 변화가 한 눈에 들어오고 삼라만상이 나를 비추어보는 거울이 된다. 이렇듯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게 마련인 것을…. 대중에 있을 때나, 홀로 떨어진 처소에 있을 때나 문 밖을 나서지 않으면 시절의 변화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 .

오늘은 붉게 물든 성삼재의 단풍에 나를 비추어 본다. 저렇듯 아름답게 물들었다가 대지를 향해 다시 돌아가겠지….

필자는 청소년기부터 사색을 통해 스스로 세상의 이치를 궁구하고 관찰하는 걸 좋아했다. 스스로 깨닫거나 발견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할 수 없기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상으로 나를 오염시키지 않으리라는 무척 건방진 신념 때문에 독서도 등한시 했다.

나이 스물을 넘기고서야 비로소 책을 통해 많은 부분을 공감했고 독서의 필요성도 느끼게 됐다.

유달리 맨땅을 좋아했다고나 할까. 맨발로 흙을 밟고, 두 손으로 흙장난을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코끝으로 흙냄새를 맡을 땐 마냥 좋기만 하다.

땅은 마음의 바탕에 비유할 수 있다. 바탕과 만났을 때 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슬플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할 때도 끝없이 울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알고 있다.

불자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가 곧 바탕이 아닐까?

염화미소의 일화는 부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 보내주시는 향기로운 흙 내음이요, 조주 스님의 찻주전자는 오늘날에도 목마른 수행인들의 사발을 채워 주시는 감로의 샘이다.

제 자리 찾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던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 말을 가끔 인용한다.

만물이 자라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는 흙, 곧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야말로 나의 할 일이라고 믿는다.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무엇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드넓은 땅이 있다. 그 바탕 위에서 뛰어놀고, 집을 짓고, 숲과 곡식을 가꾸고, 똥오줌을 싸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 각자의 몫이다.

나는 차(茶)와 선(禪)과 그림으로 표현되는 삶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려 한다. 맑혀진 마음의 바탕에 스미어 실컷 울어버리려 한다. 덩더꿍 덩더꿍 춤도 추려 한다. 이것을 발원이요, 회향이라 여긴다.

어느 한 사람일지라도 차 한 잔의 나눔에서 흙 내음을 맡고, 그림 한 점에서 바탕을 엿볼 수 있다면, 그로인해 잠시의 평온과 행복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불조의 은혜를 다 갚는 것은 못되어도 출가 이후 늘 가져왔던 '회향'이라는 숙제를 조금씩 해 가며 사는 것이 아닐까?

성삼재의 단풍잎이 너무 붉었나? 망상이 더욱 길어지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겠다.

삼세의 모든 생명이시여,
언제나 밝고 맑고 아름다우소서!

오늘날 땅위에는 많은 것들이 세워져 있다.

도시 속에는 판자촌도 있고 타워팰리스도 있다.

숲에는 낙락장송(落落長松)도 있고, 칡넝쿨도 있다.

흐르는 시냇물도 있고, 악취풍기는 시궁창도 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땅위에 서 있는가?

社說

정부는 10·27법난 사과하라

10·27법난은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다.

1980년 당시 군부는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 등 153명을 강제연행했다. 전국의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은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군부로부터 일제 수색을 당했다. 올해로부터 31년 전 일이다.

같은 해 광주에서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우리 사회의 재평가가 이뤄진 것에 반해 10·27법난은 제대로 된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실규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다. 31주년 기념법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가운데, 10·27법난의 최고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혜성 스님(도선사 회주)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는 기존 판례와 동떨어진 이번 판결은 10·27법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낸 경우이다.

10·27법난은 불교계로서는 치욕적인 사건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수습되는 지난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불자들이 두 번 세 번 분심(忿心)을 되삼키고 있다.

〈금강경〉에 "과거·현재·미래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고 했다. 과거심을 얻을 수 없다고 과거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물길 지나간 자리는 남지 않았어도 건넌 이의 바짓단은 젖어 있기 때문이다.

10·27법난도 5·18민주화운동처럼 재평가되길 바란다. 그 시작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이다.

조계종 교구제 바꿔야 산다

10월 26일 대토론회의 주제는 지역불교 활성화였다. 행사에서는 조계종 교구제 개편이 이슈였다.

현행 조계종 교구제는 1911년 일본이 한국불교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중앙종무기관 없이 도입한 31본산제가 근간이다.

강산이 바뀌어도 10번이 바뀌었지만 우리 불교계만은 100년 전 제도를, 그것도 일본이 남기고 간 잔재를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1970년 150개도 못되던 것이 현재는 23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인구밀도에 따라 분화를 거듭해 왔다. 세상이 변하고 변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됐음에도 절집의 24칸 구획만큼은 요지부동이었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구본사는 수행교화 등 사찰 본연의 기능보다는 사찰 행정업무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대부분이 지역포교를 관장하기보다는 그저 크기만 큰 사찰에 지나지 않고 있다.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대기설법을 펼쳤다. 하물며 부처님 법을 담은 도량, 그 도량들을 묶은 교구의 외형을 한정 짓고 또, 집착해서야 되겠는가. 고이면 썩는다. 변화하지 않으면 뒤쳐진다.

세상에 상주(常住)하는 것은 "제행이 무상하다(諸行無常)"는 진리 뿐이다. 하물며 사사로운 이익을 따져 현행 교구제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四柱
子平眞詮 精解
자평진전의 위상
자평진전은 적천수와 더불어 명리학의 양대 축을 이루는 고전이다. 중화민국대의 대명학리자 서락오(徐樂吾)의 설을 인용하면, 이 두 가지 학설이 서로 보완이 되어야만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자평진전을 읽고 난 뒤에 적천수를 읽어야만 적천수의 기격(奇格)과 이국(異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충언하였다.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교만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사주의 격국
사주격국은, 어느 한 사주의 분수(分數)와 지향점을 뜻한다.
그러므로 격국을 모른 채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엔진능력과 행선지를 모른 채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 무엇보다, 격국논리는 생극제화를 요체로 삼는 자평진전으로 배워야만 그 명석한 원리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자평진전을 전국서점, 인터넷서점에서 지금바로 만나세요.
전국 서점 판매중!
■ 우명 서상덕 역/저 · 산을 심효첨 원저 / 신국판 744쪽 / 정가 40,000원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통증
신제품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영업사원 모집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금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